

경제

공정위, 삼성전자 때리기?...또 과징금

기사본문

SNS댓글 쓰기

CAR VS CAR 자동차 설문조사 이벤트

입력 2012-05-22 17:31:23 | 수정 2012-05-23 10:13:22 |

📄

 번

협력사에 부당한 발주취소 빈발...16억 부과
삼성 "주문 계속 수정하는 IT업종 특성 무시"

삼성전자 발주시스템

1 생산예정물량통보

향후 20주간 예상물량을
주간단위로 통보

2 일별생산계획 통보

향후 2~3주간 물량을
미리 통보

3 발주

납품 1주전
발주 주문

4 납품지시

납품 1~3일전
확정 주문

5 입고 및 대금지급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전자가 협력업체 발주 취소 건을 놓고 맞붙었다. 공정위가 22일 “협력업체에 발주한 주문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16억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삼성전자는 시황에 맞춰 생산 계획을 자주 수정하는 정보기술(IT) 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취소 물량은 발주량의 1.4%(금액 기준 0.5%)에 불과하며 취소 물량의 75%를 다시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상습 취소 vs 업의 특성=공정위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삼성전자가 협력사에 발주한 150만건을 조사한 결과 발주를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받은 사례가 2만8000여건(1.86%)에 이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발주 취소액은 643억8300만원이다.

삼성전자양측 주장

공정위		삼성전자
150만건	발주건수	171만건
2만8000건	취소건수	2만4000건
1.86%	취소율	1.42%
643억원	취소금액	643억원
삼성주장 인정못함	취소후 재발주건수	576억원 (1만9234건)
	최종 취소건수	67억원 (5289건)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생산 물량 감소,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발주를 상습적으로 취소해 협력사들이 재고 부담, 미납품 차제 처리, 이자 부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시황에 따라 발주와 발주 취소, 재발주 등 주문을 계속 수정하는 IT업의 특성을 간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체계화한 공급망관리체계(SCM)를 통해 협력사에 향후 20주간의 생산 예상 물량을 미리 통보한다. 납품 1주일 전 발주한 뒤 최종 납품 지시는 1~3일 전에 내린다. 발주를 취소할 땐 협력사 동의를 구하며 협력사가 거절하면

많이 본 뉴스

종합

포토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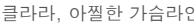
SNS 인기

1



김추자, 매니저 소주병 테러사건 후 성형만 6번...
김추자 매니저 '소주병 테러' 가수 김추자의 컴

2



클라라, 아찔한 가슴라인 그대로 노출 ...수영장...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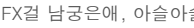
한수아, 미녀 군단과 단체로 아찔하게...비키니녀...

4



무한도전 소개팅녀 지호진, 비키니 자태 보니 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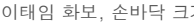
FX걸 남궁은애, 아슬아슬한 노출 화보 공개... 화...

6



성매매혐의 성현아, 굳게 다문 입술

7



이태임 화보, 손바닥 크기 비키니 입고 아찔 ...환...

이 시각 관심정보

· 불편한? 소음순, 이유를 아시나요?

· 100% 셀프인증 돈 자량에 빠진 그들, 정체는?

· 대명리조트 "할인분양" 선착순분양중!!

· "노스페이스" 80% 눈물의 재조정리!!

· 죽은 치아 제발 뽑지말고 살리세요

· "블랙야크" 바람막이 39,000원!

· 옥동자, 원어민 뽀치는, 영어실력 비결은!?

· 100만원 벌던 노동자 1년만에 100억 벌어!

한국경제신문 N스크린 서비스

한국경제 디지털 신문

한경+



오늘의 핫물릭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52203431 [2014-05-30 오전 8:56:08]

최소하지 않고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는 식이다.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제외한 생활가전사업부를 더할 경우 발주건은 170만건이며 발주 취소 비율은 선진국 수준인 1.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요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주를 수정해도 협력사 입장에서 월별, 분기별 총 수주량엔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가 동의해 발주를 취소한 2만4523건 가운데 1만9234건(78%)을 재발주했다고 덧붙였다.

정창욱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재발주한 것을 추적해 봤는데 재발주량의 상당수는 취소 물량보다 적게 발주했고 5000여건은 아예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발주 취소율이 1.86%(공정위)와 1.4%(삼성전자)로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는 “생활가전 사업을 하는 광주삼성전자가 삼성전자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는 “SCM은 재고량 최소를 위해 ‘저스트 인 타임(JIT)’생산 시점에 딱 맞춰 납품받는 것’으로 돌린다”며 “발주 취소가 1회성 거래에서는 문제지만 협력관계가 계속 이뤄지는 가운데 발주량을 수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삼성의 ‘구원’=공정위가 협력사에 대한 발주 취소만으로 과징금을 물린 것은 처음이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첫 대상이다. 전자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꽤씩미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관의 출입을 막고, 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사를 방해해 지난 3월 역대 최고인 4억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삼성전자는 2005년, 2008년에도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를 낸 ‘전과’가 있다.

Q. 왜? 언제? 어떤?
상소회사에 가입해야 하죠?

A. 자산 22조원 한국교직원공제회 100%출자회사 CCM인증, 자본금 500억원,페이백시스템

6개월 | 믿음·정직·품격

상담 및 가입 1566-6644

삼성전자는 당혹해하고 있다. 조사 방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직원 준법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협력사 발주 취소건이 불거져서다. 삼성 관계자는 “동반성장, 상생 등과 관련해 협력사를 돕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해 왔는데 이번 공정위 발표로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심결 내용이 도착하면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현석/박신영 기자 realist@hankyung.com

트윗 <1

공감 <0

댓글쓰기

전체기사 보기 >

관련기사

- ▶ [사설] 공정거래는 착한 규제라는 말장난을 방패삼을 텐가
 - ▶ [취재수첩] 공정위의 국내기업 역차별
 - ▶ 당합 과징금 두배로 늘듯...공정위, 감경요건 대폭 강화
 - ▶ [사설] 공정위는 여론재판까지 해보자는 것인가
 - ▶ [이슈 & 포인트] 동의의결 등 자율시정제 활성화를
- ☞ "노스페이스" 80% 눈물의 재조정리!!

포토 뉴스



50대 귀부인, 호텔서 영계男들과 '발각'



대기업 다니던 男 여배우와 어울리더니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기사구입문의 | 구독신청

뉴스레터신청 | 한국경제트위터 | 한국경제앱 | RSS

투데이포커스

1 / 2 / 3

"개그맨 정종철" 내자식 유학 안보네...

과거 "옥동자" 캐릭터로 큰웃음을 자아낸 개그맨 정종철씨가 최근 영어 개그에 도전하고 있다.정종철은 한류에 맞춰 개그도 영어개그가 되야만 하며 지난1월부터 윤재성(59)선생님(윤재성영여 대표)과 함께 "소리영

- 6~17세 "키 크려면 우유, 두유 절대 먹지마세요!"
- 성관계시 女性이 원하는 매너는?
- →중고차값 "미쳤다" 내차 팔면 얼마?
- 밥도 못먹는 67억 부자, 사연 알고보니 '경악'
- 100만원 벌던 노동자 1년만에 100억 벌어!
- 왜 자꾸 체하나 알고보니..."충격결말"

인기뉴스

1/2 < >



'성매매 혐의' 성현아 시부모가 폭탄 발언



이민기 "부담없었다" 더니...女배우를 '헉!'



이태임, 가슴라인 흰하 드러낸 자태



'2014 부산모터쇼' 주목할 만한 차는?

이 시각 주요뉴스

- 8천만원으로 1000억 대박 '압구정 미꾸라지' 몰락
- 그랜저 타는 女의사 "남자 동료가 차 몰라 보더니...
- 500만원으로 차린 회사 4년 만에 '2700억' 대박
- "이런 게 왜 이제야 나왔나"...각계에서 뜨거운 반응
- 옥소리, 간통 소송 도중 방송서 '이럴 수가'
- 행복한 부부, 집에서는 성폭행하며...충격
- 50대 귀부인들, 호텔방서 영계男과 '발각'
- "고졸도 서러운데 이런 차별 당하다니..." 눈물 고백
- 임신 3개월女, 가족 수십명에게 맞아 숨쳐
- 이휘재 "아내 '마담 일'해서 月 3천만원 번다면..."

일량일량 경제퀴즈

보험 계약자가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용모하기 >

금융신상품

'힘내라! 우리 중소기업 정기에금' 출시

리얼타임 외환, 금융정보 인칭 money

암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5가지



의료실비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3가지



동영상



피케티, 통계 조작 논란



'소시' 유리, 의상 너무 과했나 '아찔' 영상



어" 트레이닝을 받아왔다. 4개월여 지난 현재 정중철은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어로 건넨 한마디로"내 고...

오늘의 주요이슈

- "블랙야크" 바람막이 39,000원!
- 개그맨 정중철, "글로벌 배운 영어는 쓰레기"
- 불편한? 소음순, 이유를 아시나요?
- 미모의 女친.. 모델서 울부짖어.. "충격"
- 욕심많은 50대 주부, 주식으로 결국 큰일내..
- 고추 만지는 내아이..알아보니? "틱장애"
- "노스페이스" 눈물의 재고정리 80%
- 김구라 "휴블렛" 가격 알고보니....

AUCTION

기린 쌀

[최대 12개월 무이자]
[5% 즉시할인] 2013

기린 쌀

[최대 12개월 무이자]
[4% 즉시할인][아산

기린 쌀

[최대 12개월 무이자]
[4% 즉시할인] (저나

기린 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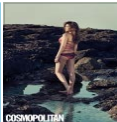
[최대 12개월 무이자]
[4% 즉시할인] (저나

이태임 화보, 손바닥 크기 비키니 입고 '아찔'...환상적인 보디라인

1/12



COSMOPOLITAN



오는 2030년 한국 최고 기업은 어디가 될 것으로 봅
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최준생
평생
캠페인

면접은
진짜 운발?
성격도
바뀌는 중...

바로가기 →

JOBKOREA

직장인생활정보



신혼의 느낌 그대로,
남편에게 사랑 받는 방법?



"이거"바르고 2주후
주름,기미,잡티 싹~!

책 이야기

더보기 ▶



[오늘의 책]

중년의 발견

과학이 밝혀낸 중년의 놀라운 능
력!

YES24.COM

금주의 베스트셀러 ▶

연예 공감뉴스

- 서세원 서정희 폭행...서정희 과거 발언 새삼 '...
- 백상예술대상, 경수진, 정말 28살 맞아? ...
- 손예진 오윤아 송윤아, 엄지원 결혼식 빛낸 여...
- '밀회' 유아인 김희애의 결정적 피아노 합주신...
- '해피투게더' 오정세, "안면인식장애 있어 아...

네이버

다음카카오

투표하기

결과보기

소셜댓글 라이브리 영역. 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댓글을 작성하고 SNS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소셜로그인

Hankyung

로그인 페

Hankyung

(으)로 의견

전송 설정

Naver 로그인 페이지 새창이 열립니다 Naver (으)로 의견전송 설정

Facebook 로그인 페이지 새창이 열립니다 Facebook (으)로 의견전송 설정

Twitter 로그인 페이지 새창이 열립니다 Twitter (으)로 의견전송 설정

Me2day 로그인 페이지 새창이 열립니다 Me2day (으)로 의견전송 설정

Cyworld 로그인 페이지 새창이 열립니다 Cyworld (으)로 의견전송 설정

GooglePlus 로그인 페이지 새창이 열립니다 GooglePlus (으)로 의견전송 설정

LinkedIn 로그인 페이지 새창이 열립니다 LinkedIn (으)로 의견전송 설정

댓글입력하는영역

소셜계정으로 작성하세요

스티커 사용하기 버튼 스티커 사용하기 버튼

0/250

보내기

Powered by LiveRe

2014 일본경제포럼 

살아나는 일본경제, 한일 경제협력 방안은?

▼ 일시 : 2014년 6월 10일 (화) 9시 30분 ~ 12시

▼ 장소 :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삼성컨벤션센터 (제2창학캠퍼스 2층)

자세히 보기

한국경제신문 회사소개 | 구독신청 | 고충처리 | 광고안내 한경닷컴 회사소개 | 광고/제휴/콘텐츠구입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사이트맵 | 문의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035 | 등록일자 : 2009.11.23 | 발행·편집인 : 황재환 | © 한경닷컴

□□□□ Family